

조계종조 도의국사 추모다례

30일 조계사서 봉행



조계종 종조(宗祖) 도의국사(道義國師·사진)의 수행 정신을 기리고 쉽 없는 정신을 서원하는 추모다례가 열린다. 총무원은 오는 30일(음력 5월2일) 오전11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추모다례'를 봉행한다.

이날 다례는 개회를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도의국사 행장 소개, 추모사, 청법계, 범어, 헌향, 헌다, 종사영반, 헌화,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의국사는 8세기 신라에 최초로 선(禪)을 전하고 조계종의 원류인 가지산문(迦智山門)을 개창했다. 784년 당나라로 유학해 광부의 보단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어 흥주 개원사에서 서당지장 선사 의 불법을 이어받고 도의라는 호를 받았다. 821년 귀국해 널리 선법을 펴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40여 년간 설악산 진전사에서 수행하다 제자인 염거스님에게 법을 전하고 입적했다.

종단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기일인 음력 5월2일 다례제를 거행하고 있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지면안내

6·4지방선거
불자후보 누가 있나 2면

전재성 박사
'빠리리 울장' 번역 5면



진영으로 보는
법정스님 전시회 13면



지난 20일 저녁 7시 종단이 조계사에서 봉행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다례에 희생자 유가족, 사부대중이 참여해 아픔을 나누었다. 아래 사진은 이번 참사로 세호 군을 잃은 아버지 제삼열 씨가 편지를 낭독하는 모습.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조계사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제...유가족 30여명도 참석

“사랑하는 나의 아들 세호야.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다. 하나만 믿어다오. 네가 내 아들이라 너무 행복했다. 다음에 다시 만난다면 더 잘 해줄게.”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지난 20일 저녁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아들 세호 군을 잃은 아버지 제삼열 씨가 먼저 보낸 아들을 그리며 읽어 내려가는 애절한 편지에 사부대중도 눈시울을 적시고 말았다.

사부대중의 공업(共業)으로 인한 참사에 대한 참회와 발원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추모제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지역 사찰 스님과 불자, 일반시민 등 사부대중 5000여 명이 동참했다. 특히 세월호 희생자 열 가족 30여 명이 참석해 불교계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제는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스님과 수록재보존위원회 스님들이 주관한 천도의식으로 문

을 열었다. 삼보를 받들어 청하는 거불을 시작으로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도량계작법, 영가를 부르는 의식인 창훈, 영가로 하여금 진리의 법계에 들어 해탈하게 하는 법문인 좌어, 영가를 정해 자리에 앉게 하는 수위안좌, 영가의 닛을 달래는 진훈무가 이어졌다.

천도의식 추모공연
사부대중 공업 참회
108배·정근까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우리는 단원과 학생들을 비롯한 희생자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희생자 여러분들은 생명의 존엄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고 탐욕으로 일그러져있는 우리 사회에 큰 족비 소리가 됐다”고 애도했다. 이어 “정부당국은 단 한 명의 실종자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면서 “유가족과 함께 이번



참사의 배경과 원인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짚어내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천도의식과 함께 희생자 추모공연도 잇따랐다. 세월호 희생자 대부분이 청소년인 만큼 아이들 그룹 '순정소년'과 '제니걸'이 초청됐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빠진 전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 힐링곡 '모두 함께'를 발표, 음원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하고 진도에서 자원봉사를 펼쳐 귀감이 됐다. 더욱이 제니걸 멤버인 은별 양은 이번 참사로 사촌동생을 잃은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또 성의신 불교실내악단 '마하연' 단장의 해금 연

주 '어느 슬픈 날'과 가수 장사의 씨 등 초대 가수들의 추모노래가 무대 위에 펼쳐졌다.

이와 더불어 사부대중은 한 마음으로 “이기주의가 사회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만든 것을 참회한다”고 발원하며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다. 신경선 한국대학 생불교연합회장은 참회 발원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고 생명을 중심에 두지 않고 안전을 중심에 두지 않고 저마다의 이익을 중심에 둔 우리 사회의 거울”이라며 “이 거울 앞에서 우리는 모두 고백하고 참회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의 정근과 참회의 108배로 추모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가운데 참석 대중은 추모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추모행렬에 나섰다.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백등을 앞세운 행렬은 조계사를 출발해 인사동, 종로2가, 종로타워 일원을 장엄하며 추모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관련기사 3면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왜 무형문화재인가 부산 연등회 ‘재연’

부불聯, 지정 심사 앞두고 6월19일 시연

전국에서 불교세가 가장 강한 부산에서 거행되고 있는 ‘부산연등회’의 지방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재연 행사가 열린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는 오는 6월19일 오후 4시 용두산 공원에서 부산연등회 재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재연은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4월26일 불죽연합대회와 제등행렬 취소에 따른 후속 행사이다. 6월 26일 지방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심사가 예정돼 있어 더 이상 시기를 늦추기 어려워 6월19일 재연행사를 갖기로 한 것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 불축행사 이후 꾸준히 부산연등회의 지방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해왔다. 불도(佛都)라 불릴 만큼 불교세가 강한 부산에서 치러지는 연등회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3월25일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부산교수불자연합회가 주관한 가운데 ‘부산연등회 보존 및 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부산불교연합회 실무진들은 부산연등회의 역사와 전통을 확인할 수 있

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등 문화재 지정에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민족의 고유한 전통으로 자리 잡은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의 역사성과 보편성을 계승하는 한편 부산이라는 지역성과 특수성을 담은 연등회를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스님은 “올해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불죽연합대회와 제등행렬을 취소하는 등 경건한 분위기 속에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했다”면서 “그동안 지방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행사가 축소 및 취소되어 이번에 부산연등회 재연 행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연등회가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서울)연등회와 함께 불축행사가 범국민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심삼스님은 “앞으로 부산뿐 아니라 각 지역 연등회가 지방문화재로 지정 받으면, 불축행사가 보다 제도적인 뒷받침 아래 불자뿐 아니라 내외국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부산=이성수 기자 scolee@ibulgyo.com

통일신라 유물 한 눈에 본다

국립中博 전시실 새 단장
전 보원사 칠불 등 전시
북극도 세계 입체적 조영

찬란한 통일신라 문화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상설전시선사고대관 '통일신라실'을 새롭게 단장해 지난 20일 문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시간적으로 신라 중대와 하대를, 공간적으로 중앙 귀족문화와 지방 사회문화를 비교하는 점에서 그간 통일신라 전시와는 다른 전시 기획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부에 전(傳) 보원사 칠불과 경주 출토 팔부중상 등을 전시해 왕권을 강화하고 대외교류를 통해 국가정체성을 마련했다. 후반부에는 황해도 평산 출

토폴 등 지방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해 고급문화를 누리고 있는 지방의 모습을 표현했다.

보존처리를 거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유물도 포함돼 있다. 은으로 만든 작은 그릇 바깥에 쌍조문(雙鳥文)을 새기고 금으로 도금한 사리호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전경주 인용사터 출토 광명대, 미륵사터 출토 향로, 군위 인각사 출토 도자기, 창녕 말흘리 출토 향로 등 최근 발굴과 학계에서 중요 자료로 평가되고 있는 새로운 유물들이 다수 전시된다. 박물관은 “이번 전시 개편에는 새롭게 발굴된 자료와 연구성과를 담았다”며 “일반 관람객 뿐 아니라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유물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함께 이루는 공명선거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4일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방선거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지역 대표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모두 밝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로 치러져 보다 나은 우리의 삶과 지역발전에 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공명선거가 실현 되도록 중립을 지키며, 종파를 떠나 국가와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첫째, 지역주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둘째, 지역·혈연·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 합니다.

셋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서로 경계하고 지적하여 바로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 합니다.

그리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요청합니다.

첫째,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얻도록 합니다.

둘째,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비방·흑색선전을 배격 합니다.

셋째, 선거 때마다 발생되고 있는 돈 선거, 불법 사조직, 공무원 선거범죄 등을 반드시 근절 시킵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 속에 공명선거로 만들어 아름답고 밝은 세상을 이루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4. 5. 12.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공동대표
공동대표
공동대표
공동대표
공동대표
공동대표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주교)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서정기 (유교성균관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